

아오모리 네부타 마쓰리의 기원

네부타 마쓰리의 기원은 명확하지 않지만, 지역에서 행해지던 네부리나가시라고 불리는 수마(줄음)를 쫓기 위한 민속행사에서 발전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행사는 건강을 기원하는 행사로, 7월 초 며칠에 걸쳐 나뭇잎이나 햇불을 가지고 야간에 밖을 천천히 행진하는데, 피로나 여름밤의 줄음을 그것들에게 옮겨 몸을 맑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뭇잎은 음력 7월 7일에 강이나 바다에 띄워보냅니다. 일본에서는 음력이 1872년까지 사용되었습니다.

네부리나가시 시기와 내용은 다나바타 마쓰리와 겹치는 점이 많습니다. 다나바타 마쓰리는 별을 기리는 행사로 나라시대(710~794)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졌습니다. 축제에 사용되는 등롱은 머지않아 네부타라고 불리는 등롱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등롱 속에 피로와 악령을 가두어 바다나 강으로 흘려보내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네부타나가시('네부타 띄워보내기'라는 의미)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네부타나가시는 네부타 마쓰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8세기 전반에는 모종의 형태로 네부타 마쓰리가 열렸는데, 초기에는 상자모양의 등롱이 사용되었습니다. 큰 인형모양의 등롱이 등장한 것은 1800년대 초입니다.

현재 네부타 마쓰리에서 사용되는 반짝이는 거대한 네부타의 형태는 1945년 이후에 정착된 것입니다. 최근에 네부타 내부 조명이 촛불에서 전등으로 바졌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아지면서 네부타는 크기가 더욱 커졌습니다. 1980년에 네부타 마쓰리는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축제 마지막 날에는 아오모리항에서 네부타의 해상 운행이 개최되는데, 기원이 된 네부타나가시가 여기에 지금도 계승되고 있습니다.